

# 진호의 반칙 극복기!

(『행복한 일 등』을 읽고)

오준영

‘행복한 일 등?’

나는 처음 이 책을 받고, ‘맞아, 일 등은 언제나 행복해. 이 아이는 뭐든지 잘해서 항상 일 등만 하는 행복한 아이인가 보다.’ 하고 상상하며 이 책을 읽기 시작했다.

그런데 주인공 진호는 내 예상과 다른 아이였다. 진호는 일 등을 하기 위해 족지 시험 때 선생님 몰래 틀린 답을 고쳐서 점수를 높이고, 달리기를 할 때는 다른 친구들보다 빨리 출발해서 좋은 기록을 받았다. 또 친구들과 함께 하는 회의나 숙제가 생기면 쓸데없는 일에 시간을 빼앗긴다 생각하고 짜증을 냈다. 나는 ‘진호야, 이렇게 해서 일 등을 하는 건 행복한 일이 아니야. 비겁한 행동이야!’ 하고 속으로 생각하며 진호도 어서 깨닫기를 바랐다.

그런데 다행히 진호가 조금씩 변하기 시작했다. 학예회 때 합동 작품으로 태권브이를 만들면서 적으로만 생각했던 친구들, 관심 없던 친구들에게 관심을 갖게 되었다. 함께 의견을 나누고 힘들어도 고생하며 친구들과 함께 작품을 만드는 일이 즐겁고 행복한 일이라

는 것을 알게 되었다. 공부든 운동이든, 놀이든, 진심으로 즐겁게 하면 모두 이길 수 있고 그게 진짜 승리라는 것을 깨달은 진호가 대견하다.

또, 과거에 잘못했던 일을 용기 내서 친구들 앞에서 밝히고 사과를 했던 모습이 인상 깊었다. 내가 만약 진호였다면 자신이 잘못된 일을 친구들 앞에서 진심으로 사과하는 것이 어려웠을 것이다. 그리고 진호가 자신이 잘못된 일을 반성하는 모습이 멋졌다. 나도 이 부분을 보고, 내가 잘못된 것이 있으면 바로바로 친구들에게 사과하고 용서를 구하는 아이가 되어야겠다고 다짐했다.

그리고 원래 진호는 엄마와 성적, 공부 같은 이야기만 나누었지만 점차 엄마에게도 성적, 공부 이야기 말고 자신이 겪고 있는 어려움, 자신이 원하는 일을 터놓고 이야기할 수 있게 되었다. 나도 진호처럼 예전에는 엄마에게 힘들었던 일들을 이야기하지 않았다. 그런데 이 책을 읽고, 엄마에게 힘든 일들을 이야기하면 내 마음이 편해지고, 엄마도 내가 이야기를 해야 나를 도와줄 수 있고 내 마음을 알 수 있게 된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다.

이 책을 통해 무엇보다도 자신의 마음을 지키는 것이 가장 중요하고, 라이벌보다 스스로를 이겨야 한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모든 일을 즐기며 최선을 다해야겠다고 다시 한 번 다짐해 본다. 진정으로 행복한 일 등이 되기 위해서! 우리는 아직 바다처럼 무엇이든 해낼 수 있는 넓은 가능성이 있는 초등학생이니 말이다.